

“기업이 행복하게! 우리의 내일을 행복하게!”

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

2018. 10

 **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**

목 차

I. 조사개요	3
II.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	4
1. 최근 경제상황 인식	4
2. 2018년 영업이익의 달성 전망	4
3. 美中 통상분쟁 및 보호무역주의	5
가. 美中 통상분쟁이 미치는 영향	5
나. 보호무역주의 극복 방안	6
4. 남북관계 및 대북제재 완화	7
5. 결론 및 시사점	8

I. 조 사 개 요

1. 조사목적

-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·분석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

2. 조사기간

- 기초자료 조사 : 2018. 8. 30 ~ 9. 12
- 자료정리 및 분석 : 2018. 9. 12 ~ 9. 21
- 보고서 작성 : 2018. 9. 27 ~ 10. 10

3. 조사대상

- 전북지역 소재 기업 110개사

4. 조사방법

- FAX와 전화조사 병행

5. 조사항목

- 최근 경제상황 인식
- 2018년 영업이익
- 美·中통상분쟁
- 보호무역주의
- 남북관계 및 대북제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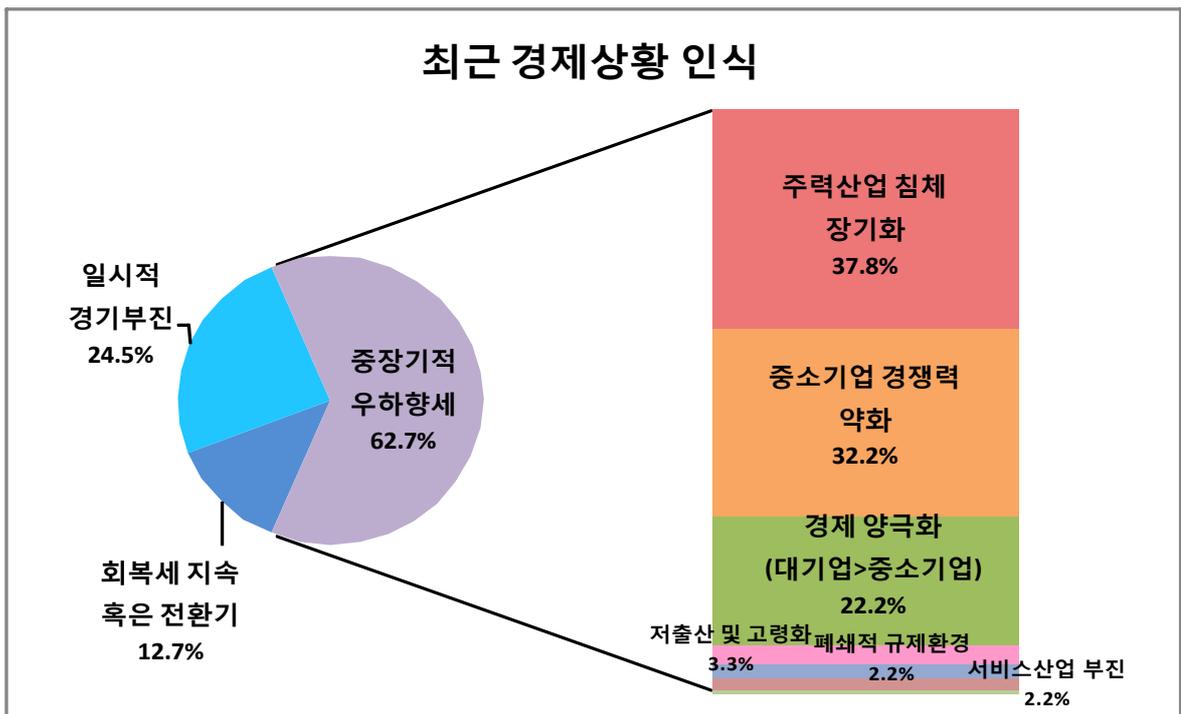
6. 기 타

- 무응답은 통계처리에서 제외
-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퍼센트(%) 총계가 다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

II.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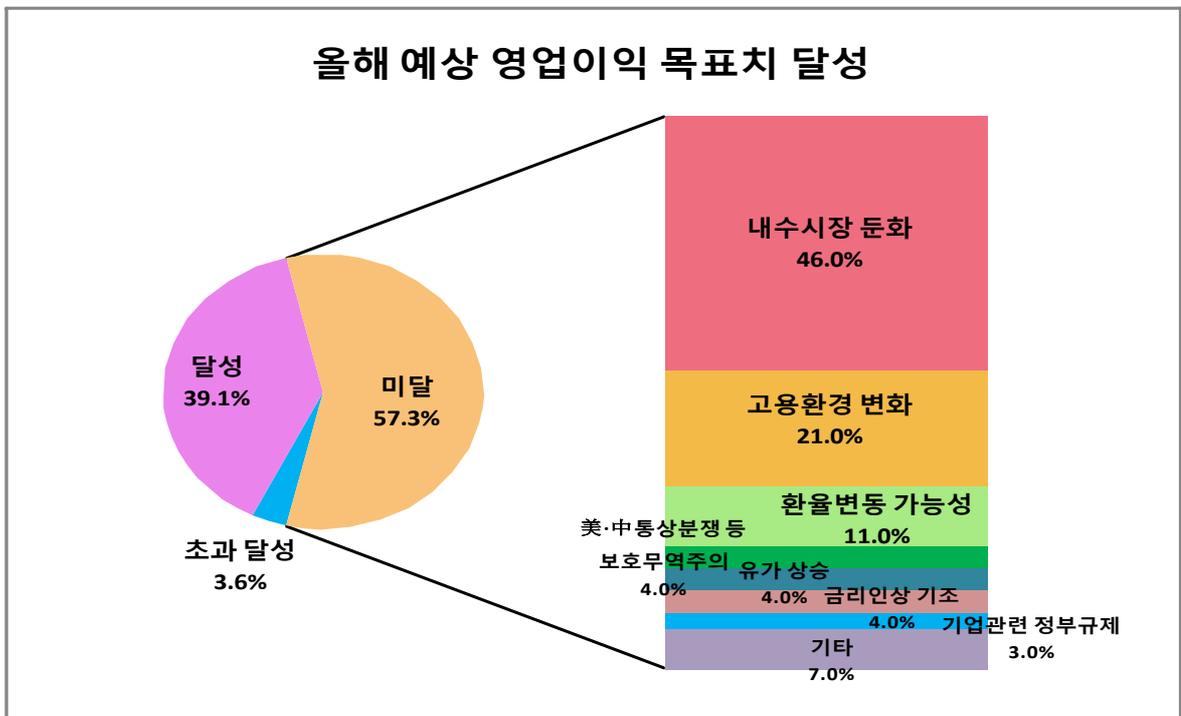
1. 최근 경제상황 인식

- 최근 전북의 주력산업인 조선, 자동차의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, 계속된 내수침체 등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를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
-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110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「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」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‘중장기적 우하향세’라는 평가가 62.7%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, ‘일시적인 경기 부진’이라는 응답은 24.5%, ‘회복세 및 전환기’에 접어들었다는 응답은 12.7%에 그쳐 지역기업들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이처럼 ‘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중장기적 우하향세’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‘주력산업 침체의 장기화(37.8%)’, ‘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(32.2%)’, ‘대기업 중심의 경제 양극화(22.2%)’ 순으로 나타났으며, 이외에 ‘저출산 및 고령화(3.3%)’, ‘폐쇄적인 규제환경(2.2%)’, ‘서비스산업의 부진(2.2%)’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2. 2018년 영업이익 달성 전망

- 연초에 세운 영업이익(실적)에 대한 목표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우리지역 기업들은 ‘**목표치에 미달**’ 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57.3%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, ‘**목표치 달성**’이 39.1%, ‘**목표치 초과 달성**’은 3.6%로 나타남
- 연초 목표액에 미달할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로는 ‘**내수시장 둔화(46.0%)**’를 가장 많은 기업들이 이유로 꼽았으며, ‘**고용환경 변화(21.0%)**’, ‘**환율변동 가능성(11.0%)**’, ‘**美·中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(4.0%)**’, ‘**유가상승(4.0%)**’, ‘**금리인상 기조(4.0%)**’, ‘**기업관련 정부규제(3.0%)**’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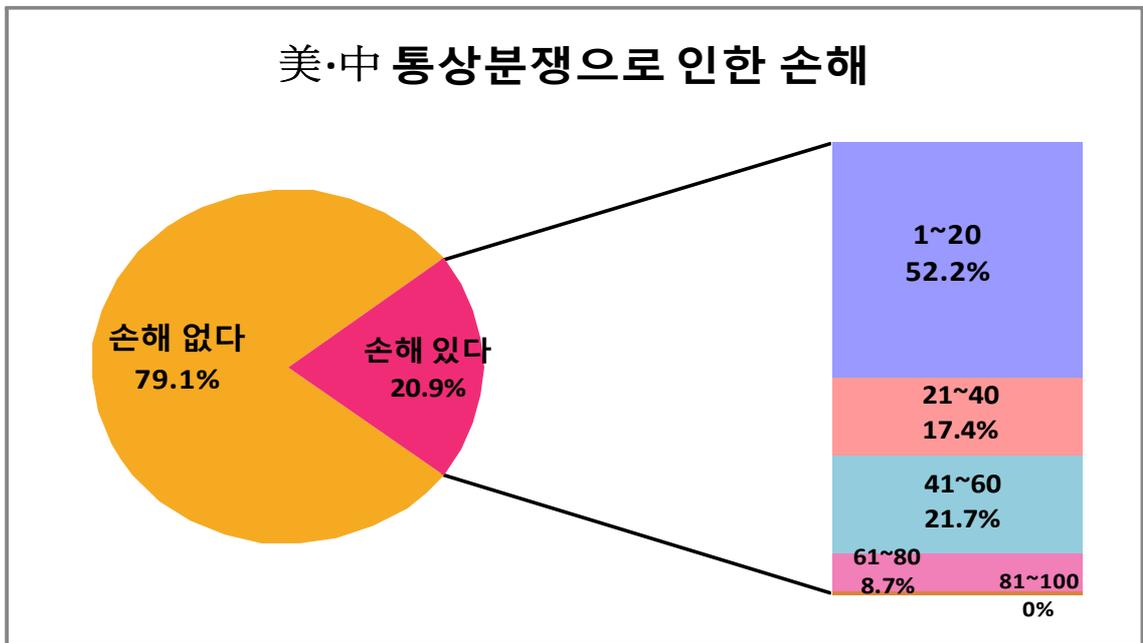


3. 美·中 통상분쟁 및 보호무역주의

가. 美·中 통상분쟁이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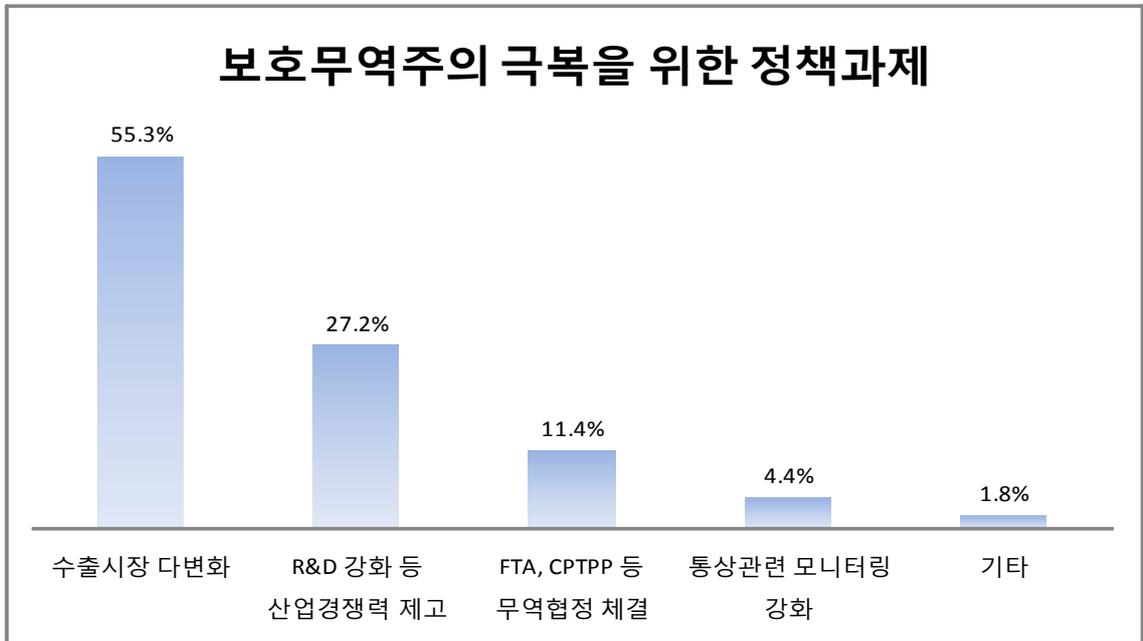
-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, 우리지역 기업들은 영업과 매출의 손해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‘**손해가 없다**’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의 **79.1%**를 차지하며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, 나머지 20.9%의 기업들이 ‘**美·中 통상분쟁으로 인해 영업과 매출액에 손해를 보고 있다**’라고 응답함

- 美·中 통상분쟁으로 인해 영업과 매출액에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에게 손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 ‘1~20%정도 손해를 보았다’라고 응답한 기업이 52.2%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, ‘41~60%정도 손해를 보았다’라고 응답한 기업은 21.7%, ‘손해정도 21~40%(17.4%)’, ‘손해정도 61~80%(8.7%)’ 순으로 나타나 우리지역의 기업들 중 일부 기업들은 통상분쟁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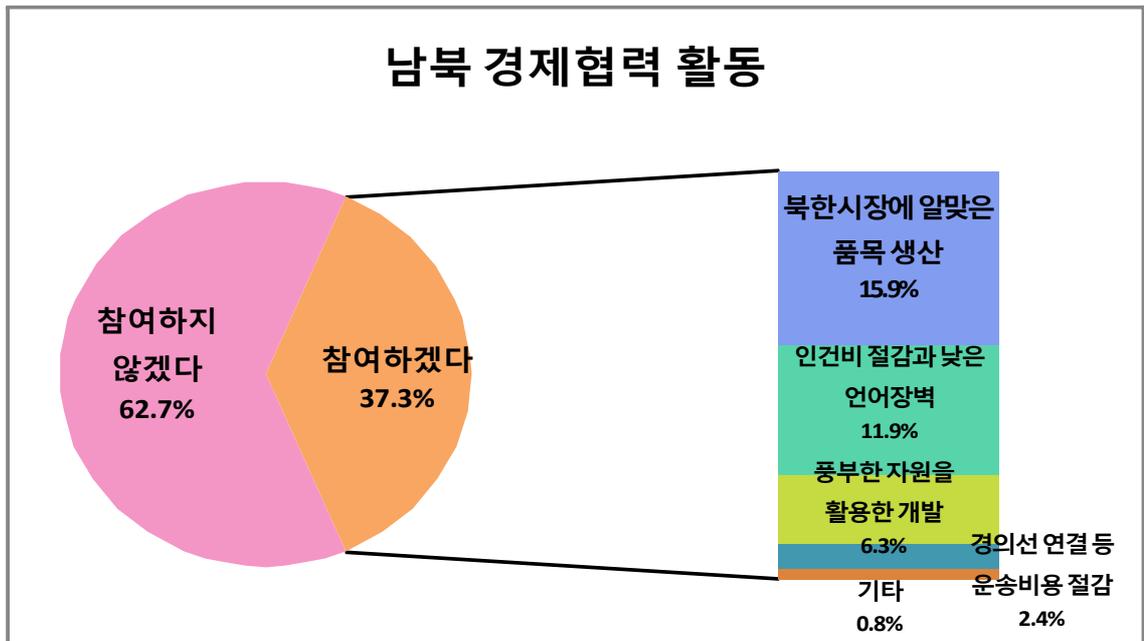
나. 보호무역주의 극복 방안

- 美·中 통상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‘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’라는 응답이 55.3%를 차지하며 절반이 넘는 응답률을 보였으며, ‘R&D 강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’라는 응답이 27.2%로 뒤를 이음
- 이외에 ‘FTA·CPTPP 등과 같은 무역협정 체결 필요하다(11.4%)’, ‘통상관련 모니터링 강화해야 한다(4.4%)’라는 등의 의견이 조사됨



4. 남북관계 및 대북제재 완화

-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기업들은 남북관계 및 대북제재가 개선된다면 ‘남북 경제협력 활동에 참여하겠다’는 응답이 37.3%, ‘참여하지 않겠다’는 응답이 62.7%로 나타남
- ‘남북 경제협력 활동에 참여하겠다’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‘북한시장에 알맞은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’라는 응답이 42.6%로 가장 많았고, ‘인건비 절감과 낮은 언어장벽을 활용하기 위해’라는 응답이 31.9%, ‘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개발을 위해’라는 응답이 17.0%를 차지하며 높게 나타남. 이외에 ‘경의선 연결 등으로 운송비용 절감(6.4%)’ 등도 제시되었음



5. 결론 및 시사점

- 조사를 통해 우리지역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주력산업의 장기적인 침체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우하향세라고 평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따라서 지역경제 회생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자동차, 조선과 같은 주력산업의 근간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임
- 특히, 기업현장에서는 미·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가운데, 남북경제협력 활동도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응답자의 40% 가까이 나오면서 남북경제협력 활동이 우리지역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
-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과 개발의지를 보이는 지역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,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